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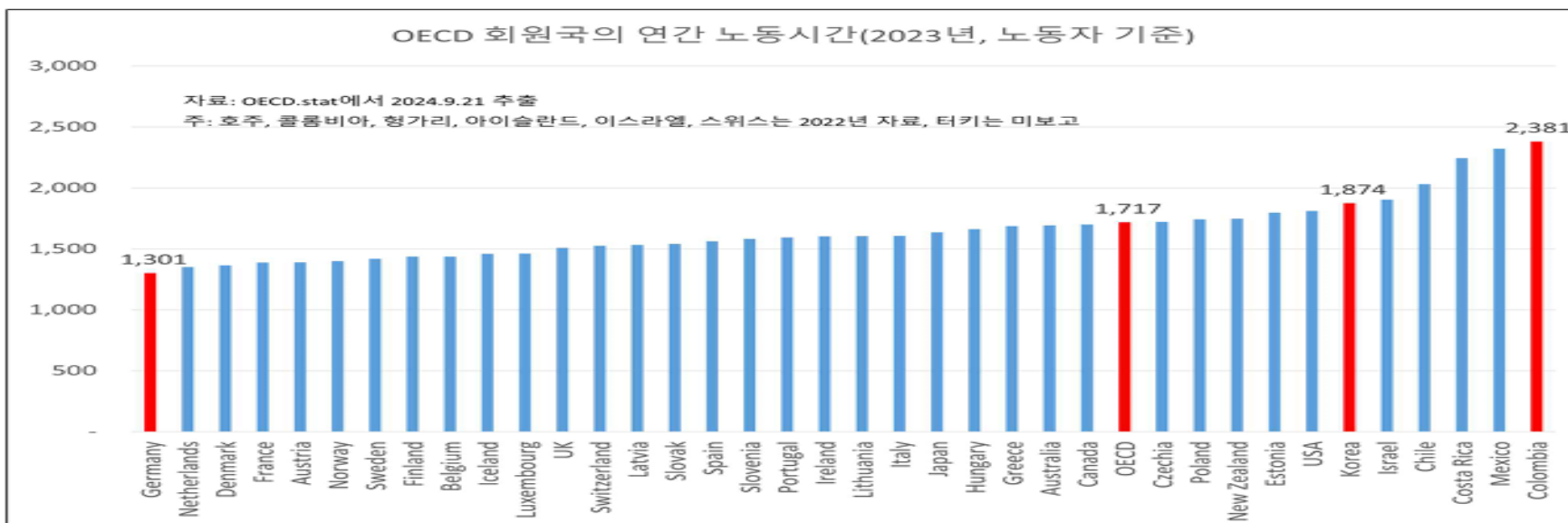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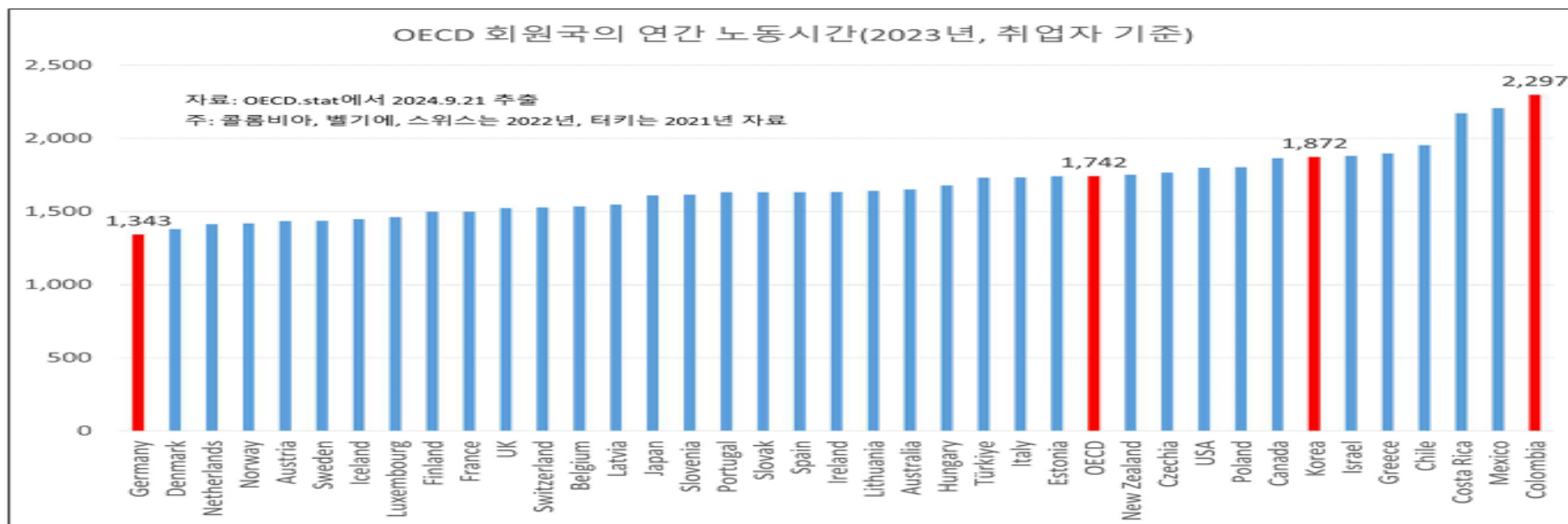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 2030년 OECD 평균 달성을 향하여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노동시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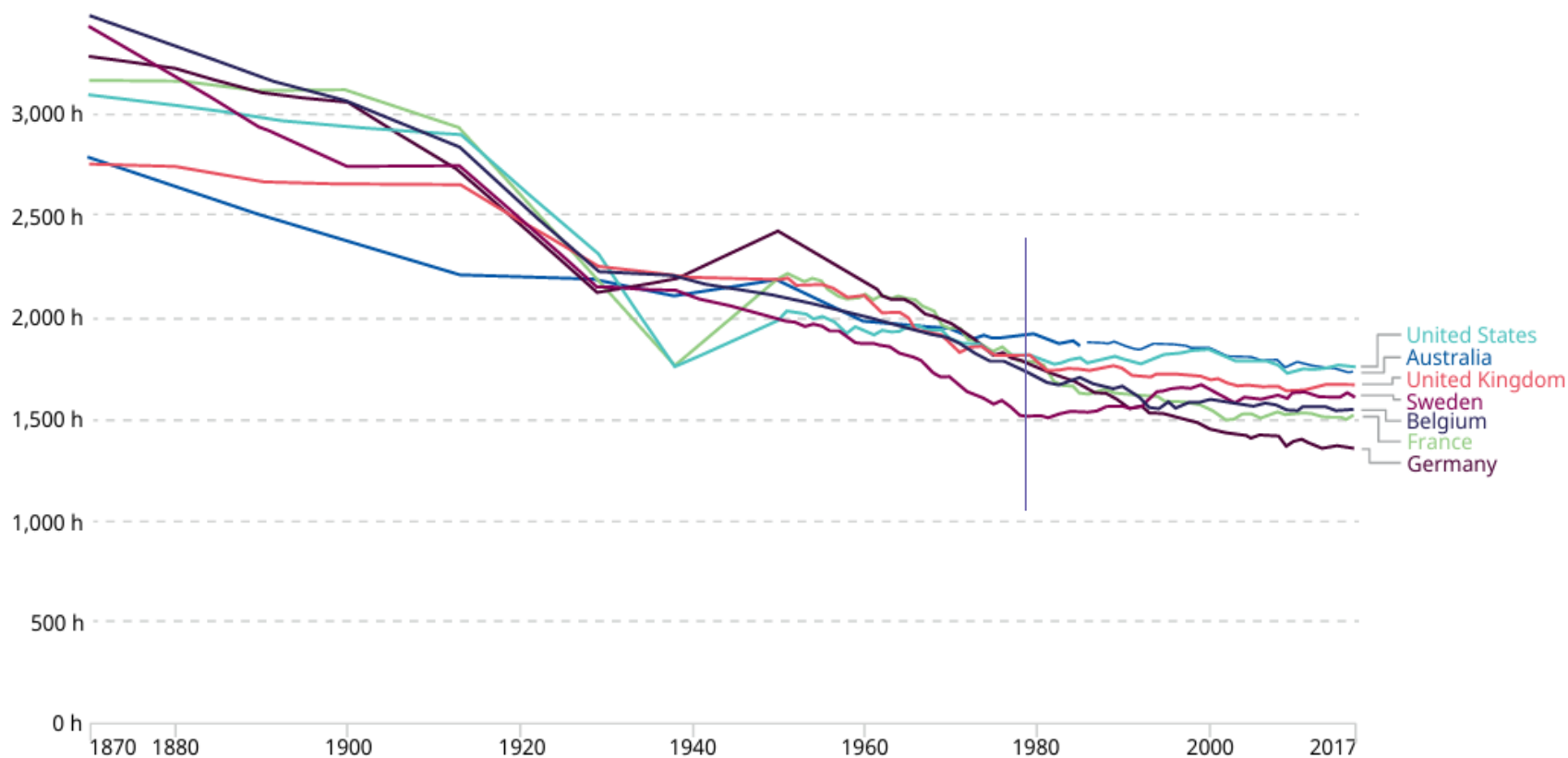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2023년)



2. 주요 국가 연간 노동시간 추이(1870~2017년)

Annual working hours per worker

Average working hours per worker over an entire year. Before 1950 the data corresponds only to full-time production workers (non-agricultural activities). Starting in 1950 estimates cover total hours worked in the economy as measured primarily from National Accounts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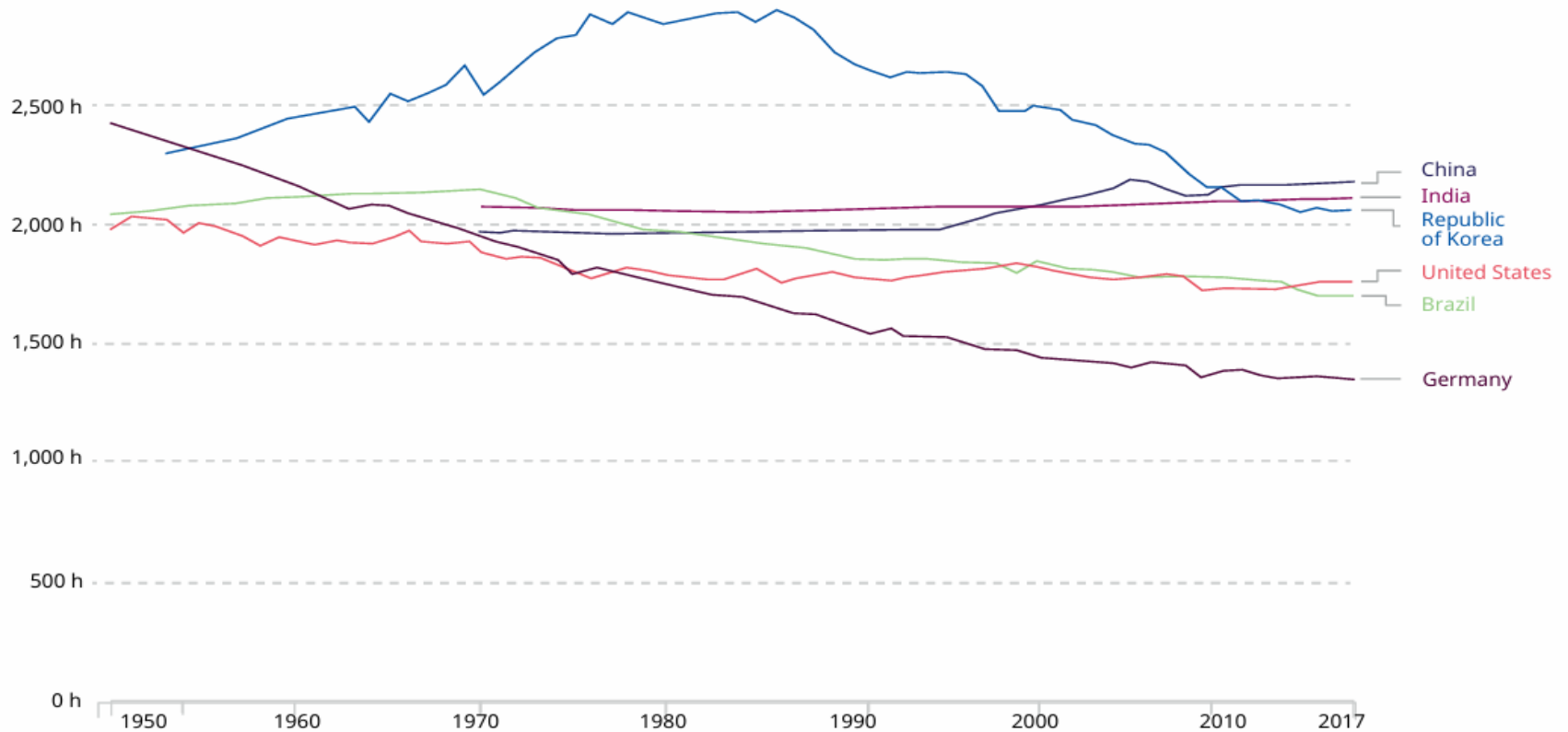


Source: Huberman & Minns (2007) and PWT 9.1 (2019) 자료: ILO(2022)에서 재인용

2. 주요 국가 연간노동시간 추이(1950~2017년)

Annual working hours per worker

Average working hours per worker over an entire year. Before 1950 the data corresponds only to full-time production workers (non-agricultural activities). Starting in 1950 estimates cover total hours worked in the economy as measured from primarily National Accounts data.



Source: Huberman & Minns (2007) and PWT 9.1 (2019)

자료: ILO(2022)에서 재인용

3. OECD 국가 노동시간 제도 비교 1

자료: OECD(2021), Ch.5

Annex Table 5.A.1 ~ 5.A.5		T.5.A.1 정상노동시간 (초과제외)		T.5.A.2 최대노동시간 (초과포함)			F.5.A.1 평소노동시간 타입 중위값 (2019)
		법정	협약	법정	협약	초과노동시간 법정	
Australia	AUS	38	38	없음	없음	없음	42
Austria	AUT	40	38.8	60	60	주20	40
Belgium	BEL	38	37.8	50	50	최대노동시간 적용	38
Canada	CAN	40		48		최대노동시간 적용	40
Chile	CHL	45		57		주12	45
Colombia	COL	48		60		주12	48
Czech	CZE	40	38	48		주8, 연150	40
Denmark	DNK		37	48		최대노동시간 적용	37
Estonia	EST	40		48		최대노동시간 적용	40
Finland	FIN	40	38	48	60	최대노동시간 적용	39
France	FRA	35	35.6	48		최대노동시간 적용	38
Germany	DEU		38.2	48		최대노동시간 적용	40
Greece	GRC	40	40	48		최대노동시간 적용	40
Hungary	HUN	40		48		연250+협약150	40
Iceland	ICE						
Ireland	IRE						
Israel	ISR	42	42	58	58	주16	44
Italy	ITA	40	38	48	48	연250	40
Japan	JPN	40	38	51.25	건설63	월45, 연360	
Korea	KOR	40	40	52	52	주12	40
Latvia	LVA	40		48		주8(4월평균)	40
Lithuania	LTU	40		48		주8, 연180	40
Luxemburg	LUX						
Mexico	MEX	48		없음		주9	48
Netherlands	NLD		37.4	60	44	최대노동시간 적용	40
New Zealand	NZL	40	40	없음	없음	없음	43
Norway	NOR	40	37.5	48		주10, 4주25, 연200	38
Poland	POL	40		48		연150	40
Portugal	PRT	40	39.4	48	건설40	일2, 연175(협약200)	40
Slovak	SVK	40	39	48		주8, 연150(협약400)	40
Slovenia	SVN	40		48		일2, 주8, 월20, 연170	40
Spain	ESP	40	38.2	없음		일4, 연80	40
Sweden	SWE	40	39	48		일5, 4주48, 월50, 연200	40
Switzerland	CHE		42	50	건설48	일2, 연170/140	42
Turkey	TUR	45		66		연270	48
UK	GBR			없음		없음	
US	USA	40		없음		없음	40
수		29	21	28	7		31
평균		40.7	38.7	51.0	53.1		41.0
중위		40.0	38.2	48.0	52.0		40.0
최소		35.0	35.6	48.0	44.0		37.0
최대		48.0	42.0	66.0	60.0		48.0

- 호주 : 38-38-42 / 벨기에 38-37.8-38 / 프랑스 35-35.6-38 / 독일 0-38.2-40
- OECD 중위값 40-38.2-40 / 한국 40-40-40 ⇒ global standard

3. OECD 국가 노동시간 제도 비교 2

그림5.8 풀타임 노동자의 주당 평소근로시간 평균값(1995-2019년)

		1995	2005	2019 (↗)
Austria	AUT		42.4	41.1
Belgium	BEL	38.3	39.0	39.1
Canada	CAN	40.6	39.5	39.2
Denmark	DNK		37.8	37.6
Finland	FIN	38.5	39.2	39.4
France	FRA	39.8	39.1	39.1
Germany	DEU	39.6	40.0	40.2
Greece	GRC	40.3	41.0	40.7
Israel	ISR	47.1	46.4	45.2
Italy	ITA	38.5	39.2	39.0
Netherlands	NLD	39.5	38.8	38.9
New Zealand	NZL	43.5	43.3	42.6
Norway	NOR	38.4	38.6	38.4
Portugal	PRT	41.1	40.1	40.8
Spain	ESP	40.7	41.0	39.6
Sweden	SWE	40.0	39.8	39.9
United Kingdom	GBR	43.8	42.6	42.0
United States	USA	42.5	42.3	42.1
수		16	18	18
평균		40.6	40.6	40.3
중위		40.2	39.9	39.8
최소		38.3	37.8	37.6
최대		47.1	46.4	45.2

자료: OECD(2021), Ch.5

한국의 풀타임-파트타임 주당 평소근로시간

	풀타임		시간제근로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2005	49.4	48	22.2	24
2006	48.6	46	21.5	21
2007	47.9	45	21.7	22
2008	47.1	44	21.5	20
2009	46.0	40	21.3	20
2010	45.8	40	21.0	20
2011	45.1	40	20.7	20
2012	44.4	40	21.0	20
2013	44.1	40	21.2	20
2014	44.0	40	21.0	20
2015	44.1	40	20.7	20
2016	43.8	40	20.8	20
2017	44.0	40	20.8	20
2018	43.5	40	20.5	20
2019	43.3	40	20.0	20
2020	42.8	40	19.6	20
2021	42.5	40	19.6	20
2022	42.4	40	19.7	20
2023	42.5	40	19.8	20
2024	42.2	40	20.0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3. OECD 국가 노동시간 제도 비교 3

자료: OECD(2021), Ch.5

5.1.2 연간유급휴가와 공휴일

		T.5.A.4	F.5.5	F.5.5	T.5.A.5	F.5.4
		유급휴가일수			공휴일수	전체휴일수
		법정	협약	실제	법정	법정
Australia	AUS	20			7	27
Austria	AUT	25	25	24	13	38
Belgium	BEL	20	25	20	10	30
Canada	CAN	10			9	19
Chile	CHL	15			5	20
Colombia	COL	15			18	33
Czech	CZE	20	25	25	12	32
Denmark	DNK	25	30	22	9	34
Estonia	EST	20	25	22	11	31
Finland	FIN	20	25	25	11	31
France	FRA	25		35	11	36
Germany	DEU	20	30	23	9	29
Greece	GRC	20	20	24	6	26
Hungary	HUN	20	20	29	11	31
Iceland	ICE					
Ireland	IRE	20		23	9	29
Israel	ISR	16			9	25
Italy	ITA	20	25	25	12	32
Japan	JPN	10		8.6	16	26
Korea	KOR	15	30	23	15	30
Latvia	LVA	20			15	35
Lithuania	LTU	20	20	22	15	35
Luxemburg	LUX	25	25	26	10	35
Mexico	MEX	6			8	14
Netherlands	NLD	20	25	24	9	29
New Zealand	NZL	20			11	31
Norway	NOR	21	26	24	10	31
Poland	POL	20	20	26	13	33
Portugal	PRT	22	22	23	13	35
Slovak	SVK	20	25	27	15	35
Slovenia	SVN	20	20	28	13	33
Spain	ESP	22		23	14	36
Sweden	SWE	25	27.5	27	10	35
Switzerland	CHE	20	25	21	9	29
Turkey	TUR	14			15	28
United Kingdom	GBR	20	25	26	8	28
United States	USA	0			10	10
수		36	22	26	36	36
평균		18.6	24.6	24.1	11.1	29.8
중위		20.0	25.0	24.0	11.0	31.0
최소		—	20.0	8.6	5.0	10.0
최대		25.0	30.0	35.0	18.0	38.0

4. 노동시간 단축 동인 : 노동운동과 제도개선

[객원논설위원칼럼] 단결하라! 연대하라! / 김유선

한겨레신문 2008.4.30

“우리도 햇빛을 보고 싶다네 / 꽃 냄새도 맡아보고 싶다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인데 / 우리 이제 여덟 시간만 일하세// 여덟 시간은 휴식하고 / 남은 여덟 시간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구두를 신고, 8시간 노동 담배를 피우며 부른 노래다. 마침내 5월1일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34만명이 거리행진에 참가했고, 19만명이 파업을 벌였다.

5월3일 경찰은 매코믹 농기계 공장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아, 어린 소녀를 포함해 6명이 죽었다. 4일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는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폭탄을 터뜨렸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경찰은 주모자로 노동운동가 8명을 체포했다. 1년여의 재판 끝에 4명은 교수형,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재판받던 중 감옥에서 숨졌다. 사형을 선고받은 스파이츠가 남긴 최후 진술이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방팔방에서 불꽃은 꺼질 줄 모르고 들불처럼 타고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1889년 7월, 프랑스 혁명 100돌을 기념해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1890년 5월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고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메이데이는 이렇게 시작됐다.

<ILO 협약과 EU 지침>

- ILO 노동시간 협약
 - 1호(1919) : 1일 8시간, 1주 48시간 (최대 정상노동시간)
 - 47호(1935) : 1주 40시간 단축
- ILO 주휴 협약
 - 14호(1921), 106호(1957) : 매7일마다 24시간 연속 휴식 보장
- EU 노동시간 지침
 - (93/104/EC) → (2003/88/EC)
 - 최대 총노동시간 1주 48시간 (단위기간 4개월 초과금지)
 - 최소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1주 24시간(단위기간 14일 초과금지) 보장
 - 유급연차휴가 최소 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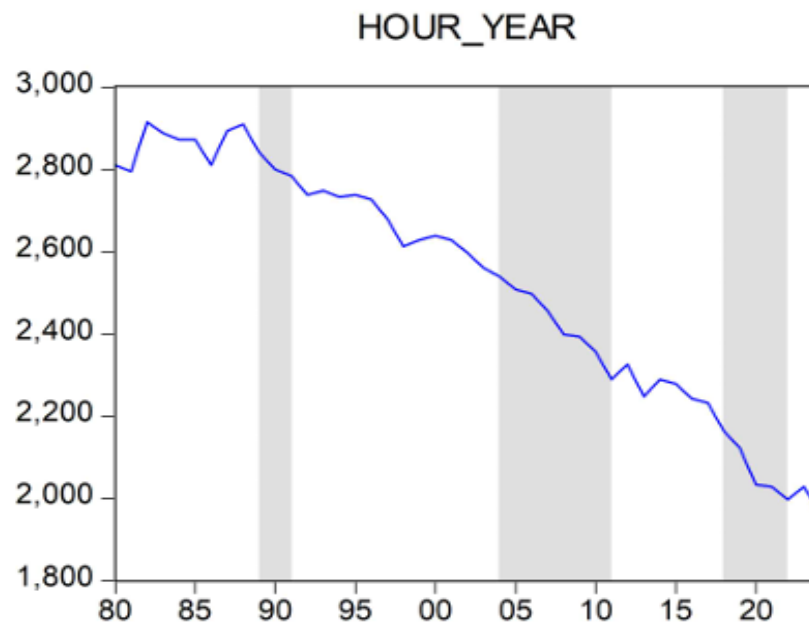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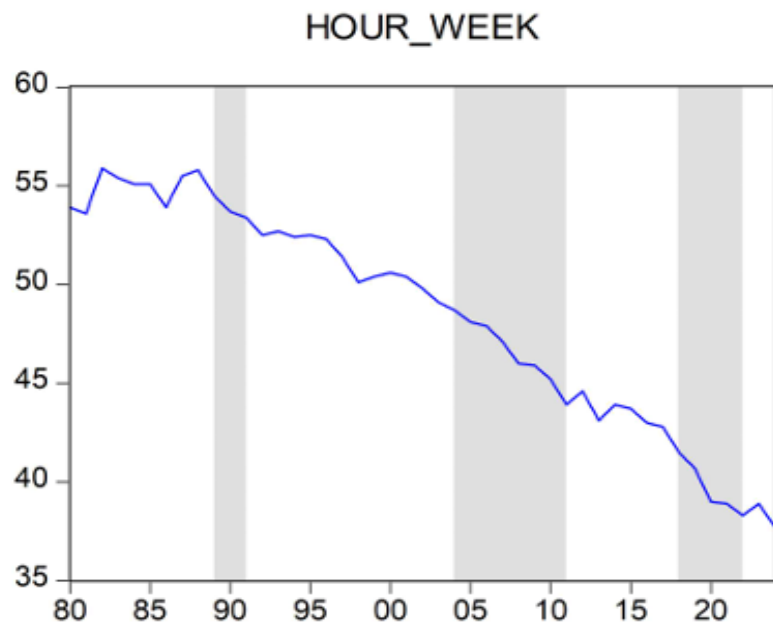
[참고] EU 지침과 한국 노동법 비교

EU 지침(2003)	한국 노동법(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48시간 상한제 (단위기간 4개월) • 예외: 수련의, 근해 석유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2시간 상한제 (단위기간 6개월) • 특례업종: 운수업, 보건업 • 적용제외: 농림축산업, 감시단속,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 상시 4인 이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7일마다 최저 24시간 계속 휴식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업종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유급휴가 최저 4주(수당으로 대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80% 이상 출근 연차유급휴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노동 특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근로수당 50% 추가

II.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1. 추이(198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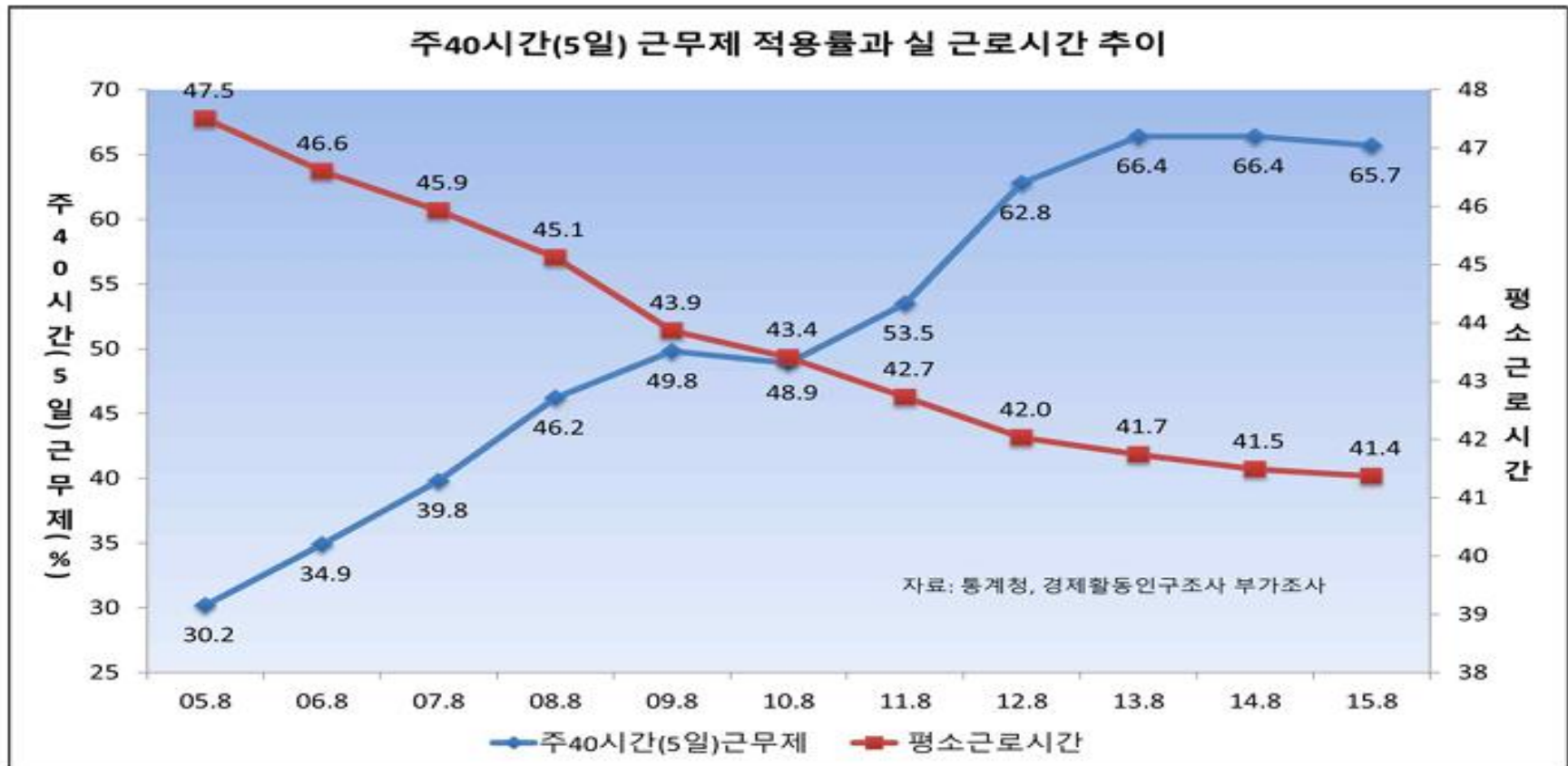
- 노동운동 활성화 + 노동시간 제도 변화 → 취업자 주/연간 노동시간 추이(1980~2024년)
 - 1989~91년 법정 정상노동시간 단축(주48→44시간)
 - 2004~11년 법정 정상노동시간 단축(주44→40시간)
 - 2017~21년 법정 최대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상한제)
 - + 2018년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 특례업종 연속 휴식시간 보장
 - + 2020~22년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 유급휴일로 보장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0~2024년)

2. 주40시간제, 2013년 이후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 소진

- 2004~11년 법정 노동시간(주40시간제) 단계적 확대 → 실노동시간 단축
- 2013~15년 단축효과 소진 → 실노동시간 불변
 - 주40시간 근무제 : 2005년 8월 30.2% → 2013년 8월 66.4% → 2015년 8월 65.7%
 - 실 근로시간 : 47.5시간 → 41.7시간 → 41.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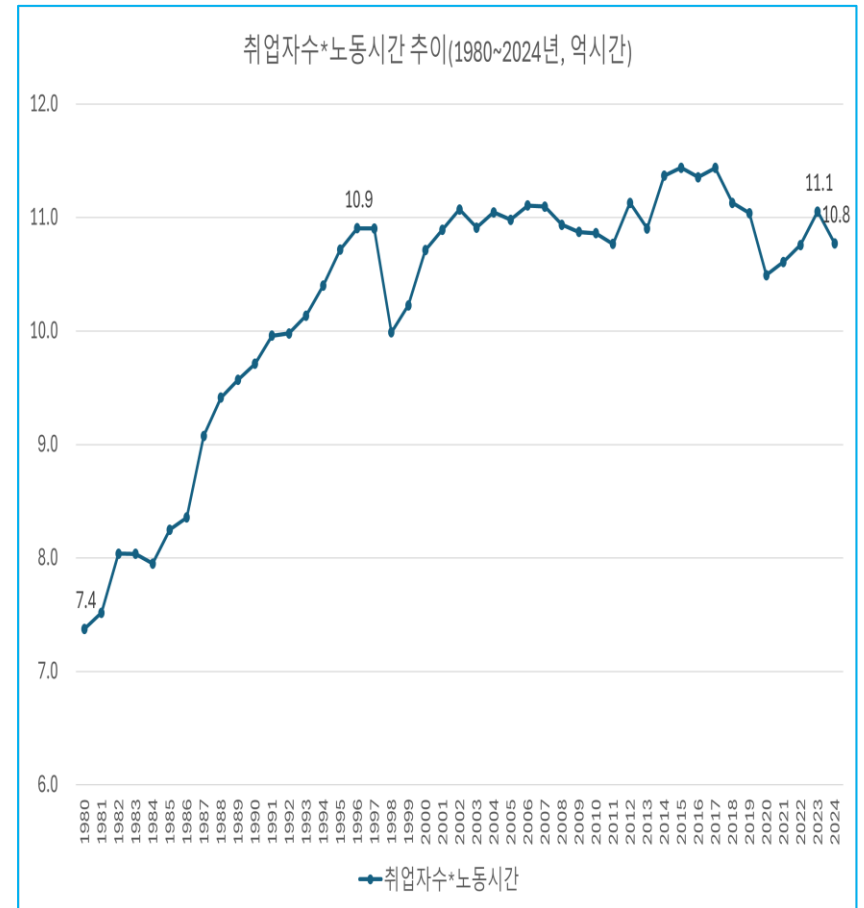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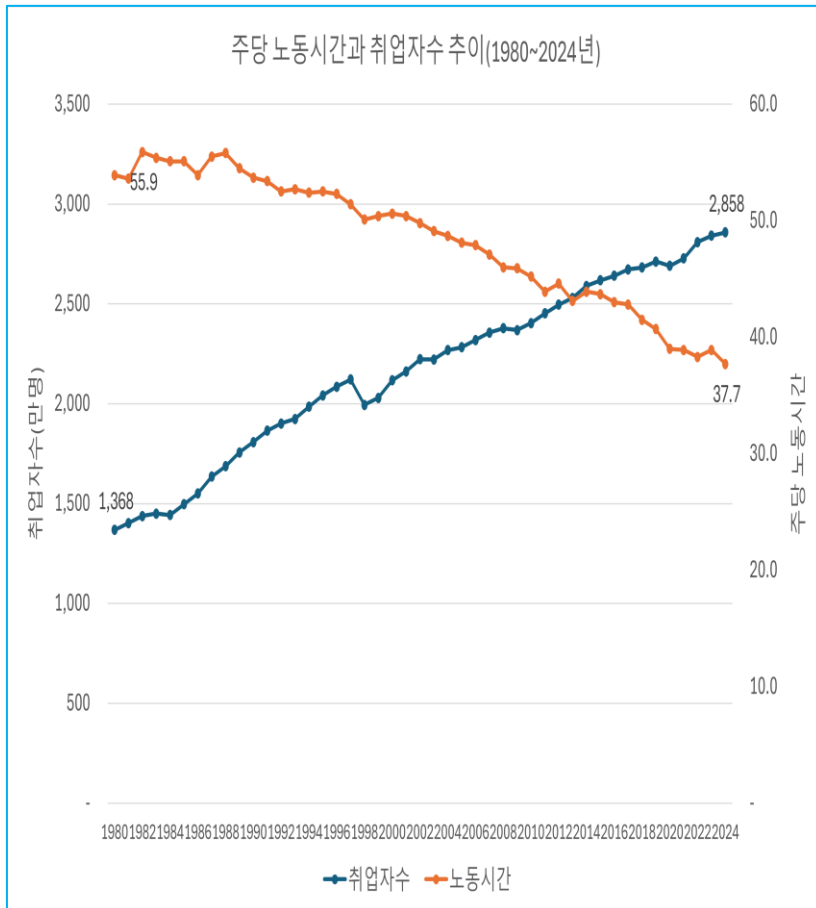
3. 2018년 노동시간 법개정 내용

2018년 노동시간 법개정 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52시간 상한제	300인이상	7월부터				
	(특례업종제외21개업종)		7월부터			
	50-300인미만			1월부터		
	5-50인미만				7월부터	
	(5-30인미만)				특별연장근로허용 (2021.7~2022.12)	
특례업종 축소	특례업종축소(26개→5개)	7월부터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9월부터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휴일	300인 이상			1월부터		
	30-300인미만				1월부터	
	5-30인미만					1월부터
연소자	기준노동시간 주40→35시간	7월부터				
	연장노동시간 주 6→ 5시간	7월부터				

Ⅲ. 노동시간 단축 성과와 한계

1. 취업자수 증가

- 2000년대 총 노동시간 불변 : 노동시간 단축 → 취업자수 증가



2. 정상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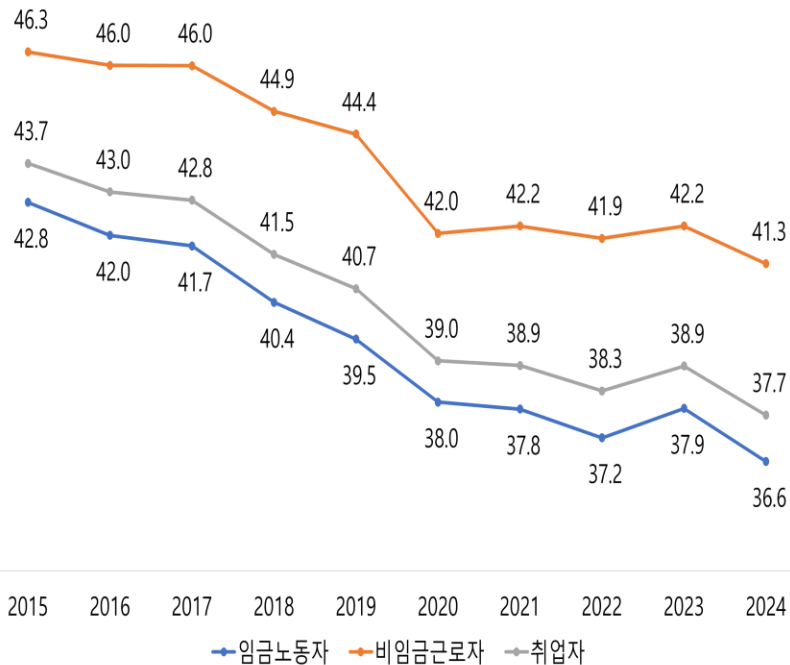
논문	법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생산성
김유선(2000)	주4시간 단축	주4.0시간 감소 주0.112일 감소		
안주엽·이규용(2001)	주4시간 단축	주1.9시간(3.8%)감소	고용 4.7% 증가	시간당 임금 13.3% 월임금 10.1% 상승
남성일(2002)	주4시간 단축	주2.3시간 감소	취업률 미약 증가	단기 2.8% 장기 14% 상승
신관호·신동균·유경준(2002)	주4시간(9.1%) 단축	주3시간(6.4%) 감소	고용 4.9% 증가	
백웅기·오완근(2003)	주4시간(9.1%) 단축	5.9% 감소	취업자 1.7% 증가	
김유선(2008)	10% 단축	근로시간 8.0% 근로일수 3.0% 감소	(단기) 미미 (장기) 취업자 6.8% 증가	(장기) 시간당 임금 10.6% 월임금 불변
김형락·이정민(2012)	주40시간도입	주43분 단축	신규고용2.3%p 감소	시간당 임금 6.6% 상승
유경준·이진(2014)	주4시간 단축	주1.6~4.2시간단축	10~29인/300인 이 상은 (+), 30~299인 은 0, 5인미만은 (-)	
노용진(2014)	주40시간도입	주4시간 감소	유의미한 (+)	노동생산성 (+)

- 김유선(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1989 ~ 91년과 2004 ~ 0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으로 분석.
 - 법정근로시간 10% 단축 → 실 근로시간 8.0%, 월 근로일수 3.0% 감소.
 - 실 근로시간 10% 단축
 - 고용 (단기) 미미 (장기) 취업자 8.5%, 노동자 13.1% 증가.
 - 임금 (단기) 미미 (장기) 시간당 임금 13.3% 증가, 월임금총액 불변.
- 김유선(2011),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10년3월)와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7월)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분석
 - 실 근로시간 11.3% 단축, 장시간근로 확률 1/5로 축소.
 -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 휴일여가시간 증가, 여가비용 증가
 -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 증가.
 -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등 긍정적 생활변화 → 여가생활 만족도 → 주관적 행복수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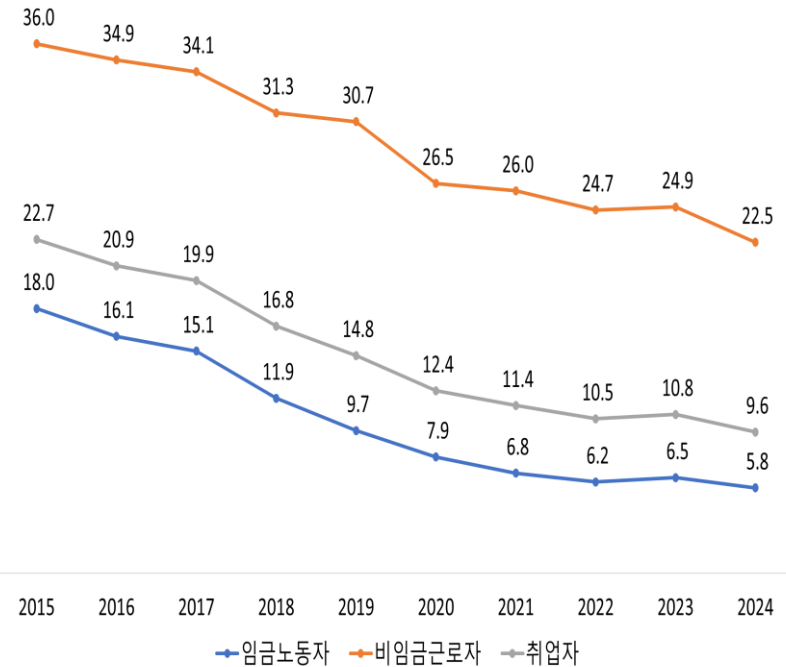
3. 주52시간 상한제 효과

- 주52시간 상한제 단계적 적용 확대
 - 18년 7월 300인 이상 → 19년 7월 특례제외업종 → 20년 1월 50~299인 → 21년 7월 5~49인
- 실 노동시간 추이
 - (취업자) 17년 42.8시간 → 20년 39.0시간 → 22년 38.3시간 → 24년 37.7시간
 - (노동자) 17년 41.7시간 → 20년 38.0시간 → 22년 37.2시간 → 24년 36.6시간

주당 노동시간 추이(15세이상, 시간)



주52시간 초과자 비율(15세 이상, %)



3. 주52시간 상한제 효과

- 노동시간 분포(노동자)

- 주52시간 초과 : 2017년 300만명(15.1%) → 2022년 132만명(6.2%) → 2024년 127만명(5.8%)
- 주15시간 미만 : 2017년 72만명(3.6%) → 2022년 125만명(5.8%) → 2024년 141만명(6.4%)

노동자	수(천명)						비율(노동자=100,%)					
	일시 휴직	1-14 시간	15-35 시간	36-48 시간	49-52 시간	52시간 초과	일시 휴직	1-14 시간	15-35 시간	36-48 시간	49-52 시간	52시간 초과
2015	320	603	2,198	10,988	1,803	3,491	1.6	3.1	11.3	56.6	9.3	18.0
2016	331	649	2,618	11,169	1,727	3,176	1.7	3.3	13.3	56.8	8.8	16.1
2017	317	715	2,470	11,728	1,703	3,001	1.6	3.6	12.4	58.8	8.5	15.1
2018	331	827	3,055	11,939	1,537	2,395	1.6	4.1	15.2	59.4	7.7	11.9
2019	336	1,026	2,975	12,539	1,586	1,978	1.6	5.0	14.6	61.3	7.8	9.7
2020	669	966	3,377	12,390	1,333	1,597	3.3	4.8	16.6	60.9	6.6	7.9
2021	389	1,186	3,879	12,559	1,327	1,413	1.9	5.7	18.7	60.5	6.4	6.8
2022	391	1,249	5,044	12,208	1,286	1,324	1.8	5.8	23.5	56.8	6.0	6.2
2023	348	1,263	3,867	13,623	1,303	1,425	1.6	5.8	17.7	62.4	6.0	6.5
2024	372	1,406	5,561	12,290	1,140	1,272	1.7	6.4	25.2	55.8	5.2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노동자수 389만명(17.6%) ➡ 사업장 쪼개기
 - 주당 노동시간 33.0시간 : 평균은 가장 짧지만
 - 15시간 미만 56만명(14.3%), 15-35시간 128만명(32.8%), 52시간 초과 33만명(8.4%) :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모두 가장 많음.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절실

<표3>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 분포(2024년, 단위: 천명, %)

사업체 규모	주당 노동 시간	수(천명)						비율(%)				
		1-14	15-35	36-48	49-52	53+	노동자	1 -14	15 -35	36 -48	49 -52	53+
1-4인	33.0	557	1,278	1,524	170	325	3,893	14.3	32.8	39.2	4.4	8.4
5-9인	35.3	348	1,001	1,858	160	230	3,634	9.6	27.6	51.1	4.4	6.3
10-29인	36.7	281	1,245	2,867	221	242	4,928	5.7	25.3	58.2	4.5	4.9
30-99인	37.8	137	968	2,598	241	219	4,265	3.2	22.7	60.9	5.7	5.1
100-299인	39.2	33	436	1,407	147	112	2,178	1.5	20.0	64.6	6.7	5.2
300인이상	38.8	50	634	2,036	201	144	3,146	1.6	20.1	64.7	6.4	4.6
전규모	36.6	1,406	5,561	12,290	1,140	1,272	22,043	6.4	25.2	55.8	5.2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일시휴직은 표에서 생략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전규모) 2018년 8.4% → 2021년 16.8% → 2024년 15.0%
 - (300인이상) 2018년 25.4% → 2021년 42.6% → 2024년 36.6%
- 전규모
 - (2021년) **재택근무제**(5.4%)>시차출퇴근(5.0%)> 탄력적근무(4.6%)>선택적근무시간(3.9%)
 - (2024년) 시차출퇴근(5.3%)> 탄력적근무(4.4%)> 선택적근무시간(3.8%)>**재택근무제**(2.4%)
- 300인 이상 사업체
 - (2021년) **재택근무제**(16.7%)>시차출퇴근(14.5%)>선택적근무시간(11.1%)>탄력적근무(11.0%)
 - (2024년) 시차출퇴근(14.1%)>선택적근무시간(12.0%)>탄력적근무(10.2%)>**재택근무제**(6.5%)

<표4> 연도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2018~24년, 단위: %)

	전체(노동자=100, %)						300인 이상 사업체(노동자=100,%)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 활용 중	8.4	14.2	16.8	16.0	15.6	15.0	25.4	36.9	42.6	40.4	39.3	36.6
- 근로시간단축제	1.3	1.9	1.7	1.8	1.5	1.8	3.9	4.1	3.9	4.1	4.2	4.0
- 시차출퇴근제	2.8	4.4	5.0	5.1	5.2	5.3	9.6	13.4	14.5	13.5	13.8	14.1
- 선택적근무시간	2.7	3.7	3.9	4.0	4.1	3.8	10.1	12.7	11.1	12.3	13.2	12.0
- 재택·원격근무제	0.4	2.5	5.4	4.4	3.1	2.4	0.7	7.3	16.7	14.2	8.6	6.5
- 탄력적근무제	2.3	4.1	4.6	4.5	4.9	4.4	6.7	10.0	11.0	10.6	11.5	10.2
- 기타(재량근무)	0.9	1.5	1.5	1.5	1.4	1.4	1.8	2.2	1.9	2.1	2.1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8월)

2. 노동시간 유형별 장단점(ILO, 2011)

1. 전통적 유연성 수단	노동자		사용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초과근로 (overtime)	(수당보상)임금 증가; (시간보상)장기유급휴가	노동자 안전보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생산 증가; 영업시간 연장	초과수당 부담; 한계생산 성 감소; 산재 위험 증가
교대제 (shift work)	(수당보상)임금 증가; (시간보상)장기유급휴가	특히 야간근로 시 노동자 안전보건, 일-생활 균형 에 부정적(-) 영향; 기타 어려움(교통과 훈련)	영업시간 연장; 상하기 쉬운 재화 대처	관리/노동비용; 높은 복잡성; 특히 야간근로 시 노동자 안전보건, 일-생활균형에 부정적(-) 영향
파트타임 (part-time arrangements)	일-생활 균형 개선; 여성·청년 노동시장 진입; 유급 풀타임에서 퇴직으로 점진적 전환	임금/고용안정/훈련/승진 /사회보험적용 등에서 고용의 질 악화; 근로빈곤 위험 증가	고객수요변동 적응; 유연한 작업계획; 때로는 조세 인센티브	잠재적 높은 관리비용; 파트타임이 풀타임과 같은 시간 노동하면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

자료: ILO(2011), "Working tim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Working-time Arrangements". 김유선(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KLSI 이슈페이퍼 201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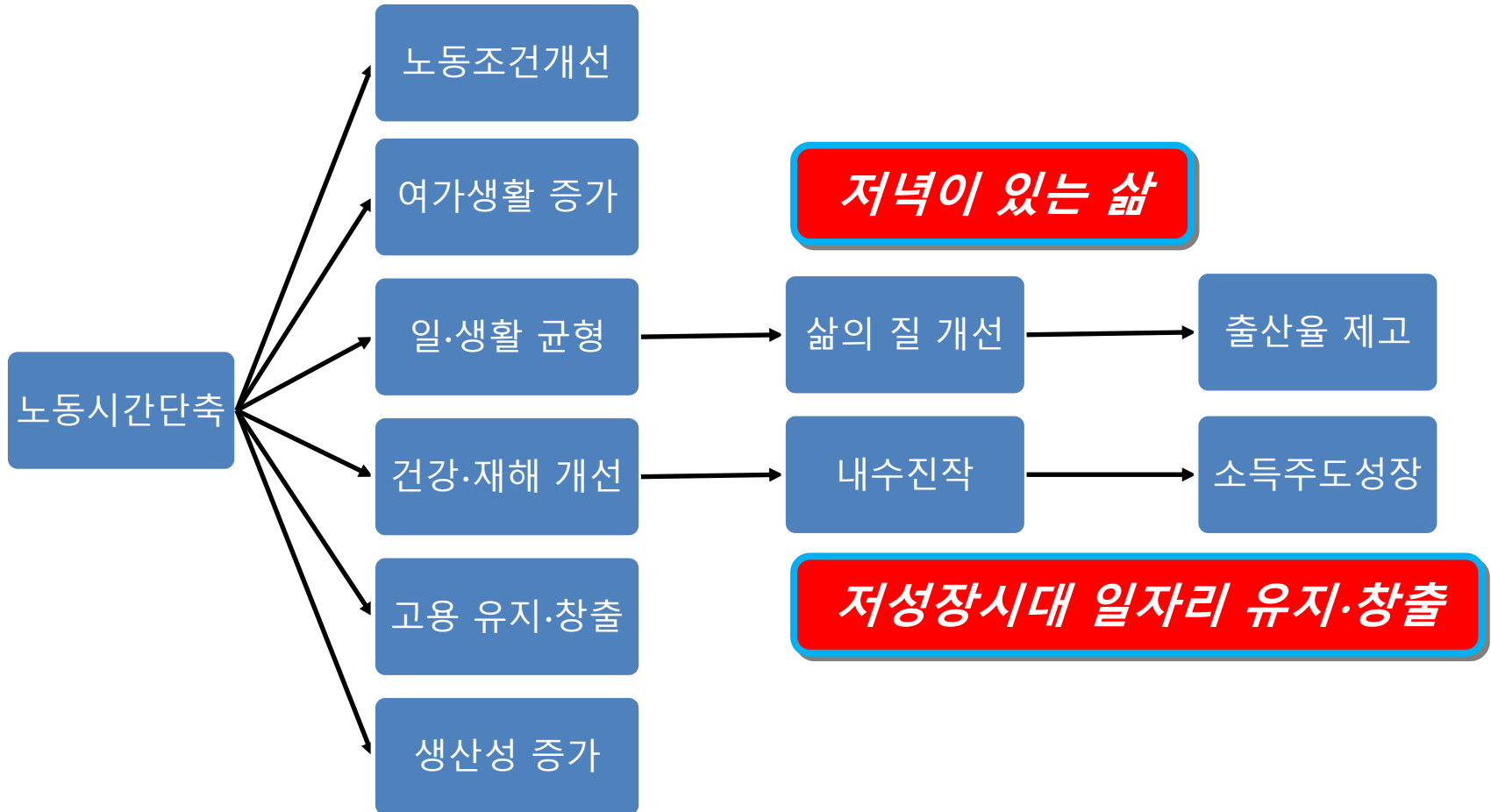
2. 노동시간 유형별 장단점(ILO, 2011)

2. 새로운 유연성 수단	노동자		사용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시차근무제 (staggered hours arrangements)	교통난 완화	일부는 새로운 작업스케줄 때문에 불편	영업시간 연장	시업·종업시간 중첩으로 기록유지 관리 어려움
집중근무제 (compressed work weeks)	노동일 감소, 출근시간과 지출 감소	1일 노동시간 증가; 피로/산업재해 위험 증가	비용절감	피로/산업재해 위험 증가; 생산성 감소
유연근무시간제 (Flexi-time arrangements) 근로시간저축계좌제 (time-saving accounts)	노동자 시간주권; 건강후생 긍정적(+) 영향; 훈련/육아/휴가일수 증가; 일-가족-사적생활 균형 개선	시간저축계좌 과부하 위험(시간주권 일정 제한)	초과근로비용 절감; 작업량 변동 적응; 노동자 동기와 성과 개선	작업스케줄 복잡성 증가(추가비용); 노동시간 직접감독 상실
탄력적 근로시간제 (Annualized hours arrangements) 기타 불안정 시간제도 (other forms of hours averaging)	노동시간 변동에 관계 없이 안정적 소득;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영향력 증가	불규칙 노동시간; 작업량 변동; 초과근로수당이 제거되면 근로소득 감소	생산변동이나 서비스 전달 적응; 초과근로수당이 제거되면 노동비용 감소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련 비용

자료: ILO(2011), "Working time: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Working-time Arrangements". 김유선(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KLSI 이슈페이퍼 2017-2호

V. 기본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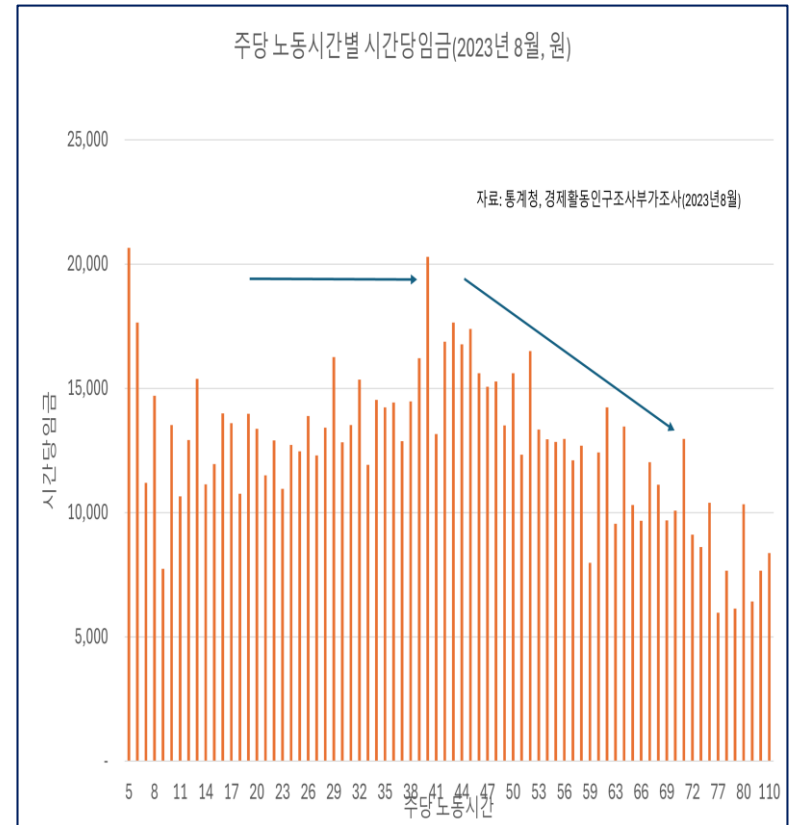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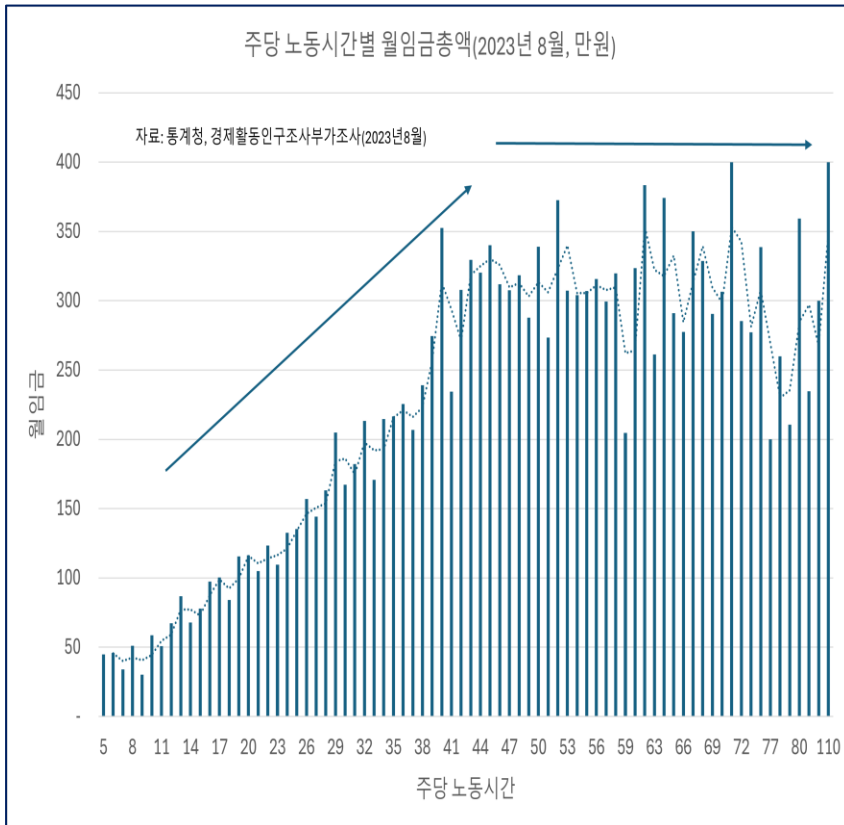
1. 적정 노동시간의 의의와 기대효과



- 평균 수명 연장 : 장시간 노동, 짧은 노동생활 → 적정 노동시간, 긴 노동생활
- 일과 생활의 양립 : 생애주기 노동시간 정책 + 시간 주권

2. 돈보다 시간을 !

- 노동시간이 길면 월임금총액이 많을까?
 - 주44~48시간 미만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길면 월 임금총액이 많음.
 - 주44~48시간 초과 노동자들은 연장노동시간이 짧으나 길으나 월 임금총액 비슷.



2. 돈보다 시간을 !

- (합의)
 - 기업은 풀타임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월 임금총액을 정한 뒤, 해당 기업의 작업 관행에 따라 필요한 시간만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음.
 - 단기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서 임금총액이 줄어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부담이 커짐.
 -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월임금총액이 줄어드는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
- (관점)
 - (최선) 노동시간 단축과 월임금총액 보전 동시 실현
 - (차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자
 - 임금보전에 매몰되면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을 수 있음.
 - 일단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후 임금인상으로 보전

3. ILO(2019), Guide to developing Balanced WTAs

Figure 1: The five dimensions of decent working time



- 걱정(decent) 노동시간 5차원
 - ① 건강과 안전 촉진
 - ② 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 ③ "가정친화적"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 증진
 - ④ 양성평등 촉진
 - 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일정한 선택권과 영향력 제공
- 노동자와 기업의 요구 양자를 충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노동시간 제도(작업 스케줄) 개발

VI. 노동시간 단축 목표 :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

영역	노동시간 단축 방안	입법
정상근로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완전 정착 (2015년 65.7%)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실시(주2/3/4일제)	
	자녀 출산·육아기 전환형 상용 시간제 확대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
비사회적 근로 (연장휴일야간)	주52시간 상한제에서 주48시간 상한제로	○
	1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전면 도입	○
	휴일 24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
	야간근로자 1일 8시간 초과 금지 및 보호제도 신설	○
	교대제 개편(격일제, 2조2교대제 등)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확대(15일 → 20일) 및 사용일수 확대	○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연차휴가 비례적용	○
적용제외 폐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농림·축산·수산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폐지	○
근로감독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협치 구조 형성, 근로감독 강화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

<민주당 공약>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09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및 주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 개선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장시간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 사용자의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및 기업지원
-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차휴가 활성화

-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 연차휴가 저축제도(예: 3년 이내 이월·적지) 도입 및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의무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선
-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 업무특성을 적극 감안하여 제도화 추진

<민주노동당 공약>

넷째,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다양하게 확산된 만큼, 노동시간 문제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주 15시간도 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듭니다.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정책이 그만큼 통합적이고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의 경우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와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최대 14일로 제한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부족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하여, 1주 15시간 이상 최소생활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고, 전일제 복귀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퇴근 후 연락 차단권(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일수를 현행 15/25일에서 25/30일로 10일 추가하고, 1년 최소 1개월의 노동안식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1

1. 주4일제 또는 4.5일제 법제화?

- 법정 정상근로시간을 <주40시간 → 주36시간 → 주32시간>으로 단축 ?
- OECD 국가 중 법정 정상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은
 - 프랑스(35시간), 벨기에(38시간), 호주(38시간) 3개국
- 풀타임 평소근로시간 중위값은 프랑스(38시간), 벨기에(38시간), 호주(42시간)
 - 프랑스/호주는 법률보다 긴 정상근로시간을 협약으로 체결 허용(유연화, 분권화)
- 한국 제도는 OECD 표준(40-40시간), but 실노동시간은 후진국
- (공약)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및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 출구 전략 ?
- 법제화 No. 산업·업종 특성 따라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 추진 사항 Yes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2

2. 주4일(4.5일) 집중근무제?

- <국민의 힘> 집중근무제 ○
 - 1일 10시간 주4일 근무 (1일 8시간 초과분 초과근무수당 ○ or x)
- <민주당> 집중근무제 x
 - 1일 8시간 주40시간 → 주36시간 → 주32시간
 -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임금인상 효과 10~20%

3. 고용구조 양극화/불평등 심화

- '프리미엄 일자리(주4일제)'와 '불안정 일자리' 격차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 주4일제는 (IT, 금융, 의료산업) 정규직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
→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효과 10~20%
 - 단기계약직, 파견직,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수요 증가
 - 표준노동시간(36~48시간)과 단시간(1-35시간) 경계선
→ 풀타임 취약계층 파트타임화 촉진
- 여가 생활의 양극화
 -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늘어난 시간을 자기 계발, 여행, 문화생활 등으로 삶의 질 제고
 - 저임금/저소득 계층은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4

4. 당장 주력해야 할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은폐하거나 우선순위 바뀜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적용 (입법/시행령)
-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입법/유럽연합 지침)
- 주52시간 상한제 정착(감독) → 주48시간 상한제 도입(입법/유럽연합 지침)
- 주40시간제 완전 정착(감독) * global standard

● 기타 과제

-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 60세 정년을 65세 정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되, 주2/3/4일제로 노동시간 단축, 임금 비례 감소
-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도입
- 기술혁신/구조조정으로 감원이 예상되는 산업은 주3/4일 근무제 도입
- 유연근무제(탄력적/선택적/재량근무제)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 노동시간 적용제외 축소(입법)
-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 도입 / 포괄임금제 폐지(입법/단협)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5

5.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 노동수요/고용총량 감소? → 주4일(4.5일)제 도입?

- 지금까지 기술혁신 → 노동수요 감소 < 노동수요 증가 → 고용총량 증가
- 이번에는 다르다(4차 산업혁명) ? No. Cf. 이문호 / 이상헌
- 인구구조 변화 → 노동공급 감소 → 고용총량

VII. 검토사항 – 주4일(4.5일)제 6 (AI 추가)

- 노동강도 강화와 '숨은 노동' 만연
 - 단위시간당 노동강도 강화 → 정신·육체적 소진(번아웃) 가속화
 - '숨은 노동', 무급 야근 만연
- 서비스 공백 및 사회 인프라와 충돌
 - 특정 요일(예: 금요일) 서비스 공백 발생
 - 이를 막기 위해 교대근무제 도입하면 누군가는 계속 5일/6일 일해야 → 형평성 문제 발생
 - 학교와 직장의 휴무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가중
 -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조율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요
- 신규 채용 장벽 상승
 - 기업은 즉시 성과 낼 수 있는 소수의 핵심 경력직 인재 선호
→ 청년이나 구직자들은 채용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결과 초래

[참고] 2017년 대선공약 - 노동시간

항목1	항목2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노동시간 단축	목표	임기내 1800시간대(매년80시간 단축)	연1800시간 상한제, 주35시간 노동제 단계적 추진	1800시간대		
	기구	노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 국가차원노동시간단축계획수립				
	연장근로	주52시간 상한제(영세업체지원)	주40시간, 연장12시간 준수, 1인 이상 확대적용, 행정지침 폐기	주40시간, 연장12시간 준수, 연 장근로동의기록		단계적축소, 휴일근로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
		특례적용제외축소, 60시간상한				특례업종 10개로 축소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2주 이내 연 속휴가 사용	연차휴가 30일이상	연차휴가1/2이상연속사용, 수당 보상제한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 적용법률	국경일/공휴일 유급휴일화	공휴일 일부 근기법상 휴일 지정		
	최소휴식	최소휴식시간제(11시간)	5시퇴근법(9to5) 도입,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산정	최소휴식시간제(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11시간),미취학 아동(12시간), 임신여성(13시간)	
	칼퇴근	카톡금지	퇴근후 업무지시 제한		퇴근후 돌발노동 제한, 초과근로 에 포함해 할증임금 지급	
		칼퇴근법-출퇴근시간기록의무			기업 근로시간기록보존의무	
		기업별노동시간공시제도		근로시간공시제도입	근로시간공시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 규제		
	기타	장시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노동시간단축시 임금저하 방지,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근로시간계좌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저축휴가 제

